

<하기 글은 2016년 10월 4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소통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삼성전자 화성 소통협의회』 4월 정기회의

봄꽃이 만개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19일, 삼성전자 DSR(Device Solutions Research) 동에서 『삼성전자 화성 소통협의회』 4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높아진 기온만큼 소통을 향한 열정을 뜨거웠던 4월 정기회의 현장,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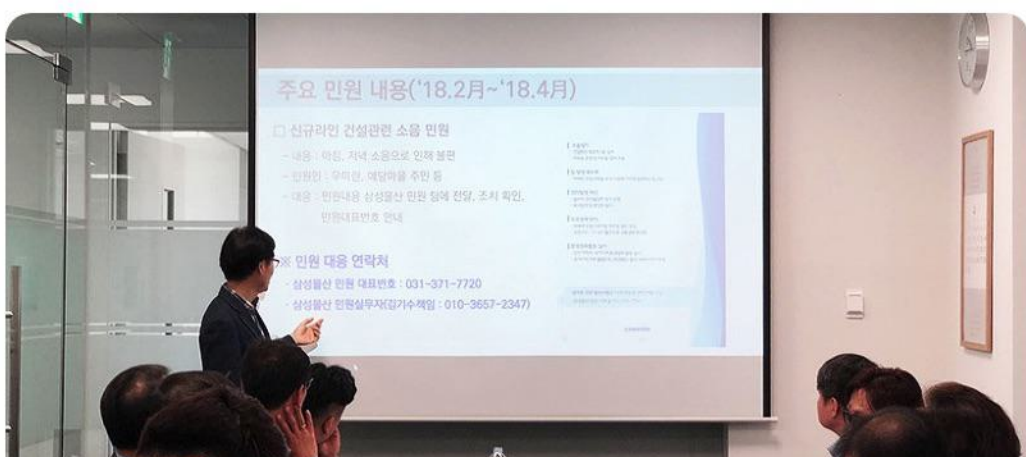
소통위원들은 유난히 맑고 화창했던 날씨처럼 밝은 미소를 띠며 회의실에 모였는데요. 이번 소통협의회는 DSR동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만큼 삼성전자 DS커뮤니케이션팀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회의는 화성 EUV라인 착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화성 EUV라인 기공식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통협의회 위원 분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화성 EUV라인 착공 이후,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 덕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불편함 개선에 신경 쓰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흥동탄 톨게이트 인근 삼성전자 통근버스 정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에 실제 교통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분명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히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BUS위치파악을 위한 GPS장비 부착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동탄 이마트 인근에 신규 라인 공사차량 무단 주차 민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게차 철수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사에 당부를 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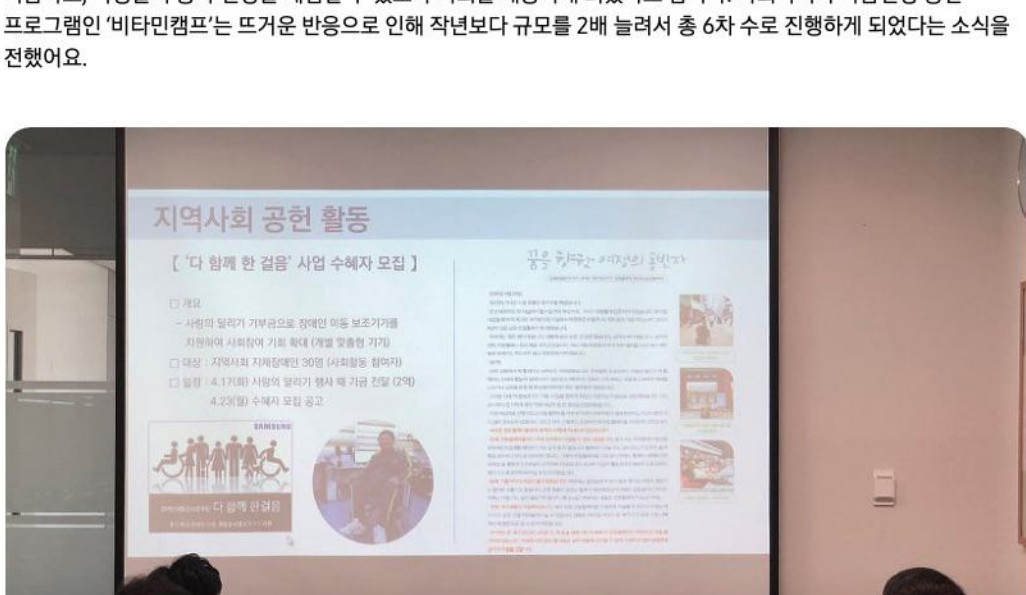
신규 라인 건설 관련 소음에 관한 민원 내용도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러한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성물산 민원 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를 확인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기 위해 민원 대표번호를 안내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물산 민원 실무 담당자가 소통협의회에 함께 참석하여 직접 대응책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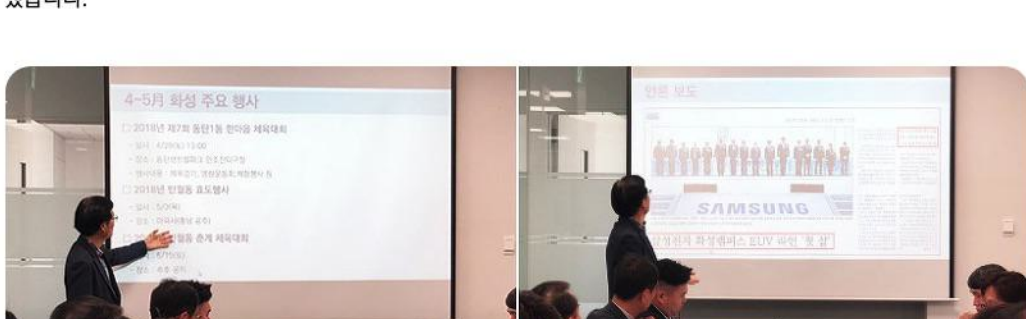
우선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것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에 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했음을 전했는데요. 소음이나 분진, 미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남측 아파트 방면에 벽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외장 대블럭 선행 공법'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을 최대한 가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장 대블럭 선행 공법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안전과 비용 추가의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불구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봉사활동 추세에 따라 주말 봉사활동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주말 봉사활동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생들이 봉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비타민캠프'는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작년보다 규모를 2배 늘려서 총 6차 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사랑의 달인기 기부금으로 장애인 이동 보조 기기를 지원하는 '다 함께 한 걸음' 사업 수혜자 모집에 관한 내용도 나누었는데요. 특히 동탄2동 강해자 소통위원은 동탄2동 주민이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5월 화성 주요 행사 소식과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소식을 나누고, 차기 회의에는 수증기 저감시설 등 주요 환경안전시설 점검을 하기로 하고 『삼성전자 화성 소통협의회』 4월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DSR동 3층에 위치한 반도체 사료실을 함께 둘러보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일정이 뜻깊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설령 가득한 봄 날씨의 4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소통위원과 삼성전자에 많은 애정과 응원 부탁드립니다.